

## 휴온스 243070

### 탐방노트

#### ● 제약/바이오

Analyst 이태영  
02. 6098-6658  
taeyoung.lee@meritz.co.kr

탐방일(17.8.31)

#### 1. 휴톡스 MOU 관련 코멘트

유럽, 브라질, 러시아의 회사와 MOU체결. 본 계약은 올해 말 목표. 계약 상대방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 각 회사 이니셜과 주력 분야는 다음과 같음

[스페인 - S(글로벌회사) / 브라질 - I(필러, 에스테틱 전문) / 러시아 - F(의료기기 및 장비)]

1, 2상은 국내 임상으로 인정 받고 3상으로 바로 가는 일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공장 capa.는 50만 Vial 수준. 2공장 짓고 있고 관련해서 실사 경험 있는 전문가를 휴온스글로벌 부사장(BMS 출신)님으로 모셔왔음. 미국의 경우 내년 상반기내 본 계약 체결이 목표

#### 2. 휴톡스 매출 인식 구조

생산은 휴온스글로벌이, 판매는 휴온스가 함(해외 판매망을 휴온스가 가지고 있음). 예를들어, 휴온스가 100억을 팔면 휴온스글로벌은 매출액 50억 인식 이후 각각의 비용을 제한 이익이 나는 구조. 여기에 기본적으로 휴온스가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에 지급하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 결과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을 서로 절반씩 나누는 구조가 될 예정

#### 3. 현재 휴톡스 판매 국가 및 '17년 가이드선스

구체적인 국가를 알기는 어려움. 지역별로는 남미, 중동, 동남아 등. 판매 방식은 1)직접 수출, 2)에이전시를 통한 수출로 크게 나뉨. 인증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만 나가고 있는 상황. 올해 휴톡스 판매액은 120~150억 목표. 내년도 비슷한 수준(capa. 한계 때문)

#### 4. 균주 이슈 관련

현재 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우리는 관계가 없음. 국내에서 분양 받은 균주를 사용하고 있음. 수출용 허가에도 큰 문제 없었음

### 5. 주사용 생리식염수의 ANDA승인 관련

주사제 라인에 대한 FDA의 cGMP 인증 완료. 생리식염수 자체도 그렇지만 해당 주사제 생산 라인에 대한 cGMP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 있다고 생각. 현재 국내 주력제품인 리도카인(마취제)의 ANDA 제출한 상황. 향후 미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한 것. 회사 내부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6. 기존 사업 Update

1) 국내 전문의약품, 점안제, 마취제: 다품목 소량 판매 구조. 80~90%가 의원급으로 나감. 판매 잘되고 있음. 연간 10%이상 성장 중. 다만 점안제 시장의 상황은 다소 좋지 않음. 국초 마취제의 경우 꾸준함. 수익성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팔고 있음. 수출 국가를 늘리면서 성장 할 수 있는 사업. 앞서 말씀 드렸듯이 미국 FDA에 ANDA 제출했음

2) 중국 휴온랜드: 1회용 인공눈물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허가, 내년 하반기 판매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중국 인공눈물 시장성 좋음. 점안제 시장 1조7천억의 3%정도가 인공눈물

3)뷰티, 헬스: 현재 성장성이 다소 둔화되어 보이지만, 개선 위한 노력 다각도로 진행중. 보톡스가 점차 올라오면서 다시 성장세도 돌아설 수 있을 것. 필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고 판단중. 주입 기기인 더마샤인의 경우 판매 성장세가 줄어드는 추세. 신제품(더마샤인 벨런스) 준비중에 있음

4)CMO: 성장세 좋음. 연초부터는 산텐의 제품(디쿠아스)을 수탁해주고 있음

5)R&D비용: 작년 197억원, 올해 260억 계획, 그런데 다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음. 진행중인 일부 임상이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 이 경우 내년에 많이 몰릴 가능성 있음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태영)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